

# 각저총 · 무용총의 별자리 동정과 고대 한중의 북극성 별자리 비교 검토

김 일 권

서울대학교

Identification of Stars in Koguryō's Kakchō and Muyong Murals and the Comparison  
between the Northern Polar Constellation of Ancient Korea and China

KIM Ihll Gwon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In this paper I have identified Koguryō's stars which appear in the Murals of Kakchō and Muyong(early 5th cen. A.D.), both located in Jian, the capital of Ancient Koguryō. They have seven or eight constellations impressively drawn on the ceiling of the main chambers which are octagonal arch-shaped domes. The stars are represented by large round red spots(Kakchō Mural) or yellow spots(Muyong Mural) which are interconnected with three parallel black lines.

The constellations of Koguryō murals are drawn uniquely in a system of four directional constellations, which also appears in the two murals. This system consists of the three stars of the Northern Dipper located in the north and the Six Stars of the Southern Dipper(the Archer) in the south. The Double Three Stars in the east are located above the Sun-disk and those in the west are above the Moon-disk. The Eastern Double Three Stars are identified as the Sim-su( $\alpha$ ,  $\sigma$ ,  $\tau$  Sco) and the Pang-su( $\beta$ ,  $\delta$ ,  $\pi$ ,  $\rho$  Sco) which correspond to the heart and head of the Scorpion, respectively. The Western Double Three Stars are the Sam-su( $\xi$ ,  $\epsilon$ ,  $\delta$ ,  $\alpha$ ,  $\gamma$ ,  $\kappa$ ,  $\beta$  Ori) and the Pul-sōng(42,  $\theta$ 2,  $\iota$  Ori) corresponding to the Great Hunter.

The Northern Three Stars under the Big Dipper has been identified as the Koguryō's northern polar constellation. In China this appears as the Northern Five Stars. The two Single Stars in the Kakchō Mural, one on the summit of the ceiling is identified as the Po-sōng(80 UMa, Alcor), and the another, at the end of Big Dipper, as the Ch'oyo-sōng( $\gamma$  Boo) or the P'il-sōng(exact position unknown). Lastly, the Single Star in the Muyong Mural is identified as the Ch'oyo-sōng or the Po-sōng.

Key Words: Koguryō's Star Chart, Four Directional Constellations, Big Dipper, Southern Dipper, Northern Polar Three Stars, Koguryō's Kakchō and Muyong Mural

## 1. 서론

본 논문은 고구려의 각저총과 무용총에 묘사된 별자리그림 중에서 기존의 同定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몇 가지 점들을 재검토하면서 이들 별자리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을 진행하고자 한다.

이 고찰에 앞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星宿圖에 대한 동정 작업이 순수 천문학적인 관점으로만 접근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환기하고자 한다. 고구려의 수많은 별자리그림은 엄밀한 의미에서 천문도 형식이 아니며, 무덤 내부의 천정 벽면 부분에 자신들의 천문 우주관을 표출하는 하나의 양식으로 그려놓았기 때문이다. 일종의 양식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은 역사적인 접근의 중요성과 천문에 대한 인문사상사적인 관점의 필요성을 제고한다. 그렇지만 벽화의 인물풍속도가 당시의 생활 풍속을 반영한 자료인 것처럼, 벽화로 남겨진 성수도는 당시 고구려인들이 실제로 관찰하면서 중요한 의미를 부여한 별자리들일 것이다.

무덤 속에 어떠한 별자리를 왜 그렸을까 하는 물음에도 마찬가지로의 접근이 요청된다. 고구려인들이 천문에 대해 많은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은 일차적으로 계절과 시간 혹은 방위에 대한 그들의 실제적인 요청과 관련될 것이며, 하필 그러한 별자리를 주로 그렸는가에 대해서는 자신들의 천문 세계관이나 성수 신앙 맥락에서 조망될 필요가 있다. 그와 더불어 자연과학적 검증의 절차가 수반될 때 고구려인들의 천문 세계관을 보다 확연하게 구축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고구려의 별자리 연구는 천문학적인 접근과 인문학적인 태도의 복합적인 안목으로 진행되는 것이 보다 건강한 접근법이라 생각된다. 이 점은 또한 앞으로의 학제간 연구를 크게 요청하는 대목이 될 것이다.<sup>1)</sup>

## 2. 기존 연구사 검토

---

1) 본 논문은 지난 한국과학사학회 가을발표회(1999년 11월 6일)의 발표문으로 제출된 것인데, 그때의 토론문(충북대 천문우주학과 이용삼 교수팀)에서 제기된 몇 가지 자연과학적 검증 측면에서의 논의는 학제간 연구의 중요성을 제고한 것이었다. 이에 그 토론발표문의 논의를 본고의 관련된 부분에서 함께 검토하여 다루고자 한다.

Ⅰ 각저총과 무용총은 마치 부부묘처럼 서로 이웃해 있는 무덤으로, 만주 집안현 우산하 고분군에 속해 있으며(그림 1, 2, 3, 4), 비교적 이른 시기인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반 무렵 축조된 것으로 알려졌다. 벽화 내용상 각저총의 구성은 비교적 절제되어 있어 남성적인 느낌을 주며, 무용총은 화려하면서 다채로와 여성적인 미학을 드러낸다. 각저총에는 묘주의 가내 생활도를 비롯하여 유명한 씨름하는 장면이 그려져 있다. 무용총의 화면 내용은 매우 다양한데, 묘주의 가내 생활도를 비롯하여 춤추고 노래하는 장면, 사냥하는 장면, 태견의 겨루는 장면(手搏圖) 등이 유명하며, 그외 여러가지 상서로운 동물이나 문양, 선인들이 묘사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각저총과 무용총은 서로 유사한 별자리들이 세 줄의 연결선을 지닌 천정 부분 가득히 커다랗게 그려져 있어 일찍부터 주목받아 왔다. 이에 대한 논문은 맨 먼저 일제시기 中村清兄에 의해 “高句麗時代の古墳について：その星像壁畫の考察を中心として”(1936)로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中村清兄은 1935년 가을 濱田耕作 등이 촬영한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처음으로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에 대한 同定 작업을 행하였다.<sup>2)</sup> 이 논문에 실려있는 두 무덤의 별자리 모사도는 그 동정 작업에 못지 않게 중요한 의의를 지니는데, 현재 잘 판독이 되지 않는 별자리 부분까지도 명확히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최근의 도록 사진<sup>3)</sup>이나 본인이 99년 8월 직접 답사하였을 때에는 이미 몇몇 부분들의 별자리가 거의 잘 확인되지 않는다. 中村清兄의 그 모사도는 각저총과 무용총에 대한 종합 발굴 보고서 성격을 지니는 『通溝(卷下)』(1940) 등에 전재됨으로써 지금까지 널리 전해지게 되었다(그림 5, 6).<sup>4)</sup>

본인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1996)에서 두 무덤의 천정구조가 팔각고임 식인 점을 고려하여 좀더 입체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새롭게 제시한 바 있다(그림 7, 8).<sup>5)</sup>

2) 中村清兄, “高句麗時代の古墳について：その星像壁畫の考察を中心として”, 『考古學論叢』 4집 (東京, 考古學研究會, 1936), p. 374.

3) KBS, 『고구려 고분벽화』 (1994); 조선일보사, 『집안 고구려고분벽화』 (1993);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조선유적유물도감』 5권(고구려 3), 6권(고구려 4) (평양, 외국문종합출판사, 1990); 한국천문학회, 『한국의 천문도』 (천문우주기획, 1995).

4) 池内宏・梅原末治, 『通溝(卷下)：滿洲國 通化省 集安縣 高句麗壁畫墳』 (東京, 日滿文化協會, 1940), p. 13; 池内宏・梅原末治, “滿洲國通化省集安縣に於ける高句麗の壁畫墳”, 『考古學雜誌』 30卷 9號(東京, 考古學會, 1940), p. 12.

5)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 『白山學報』 47호(백산학회, 1996). 이는 金井塚一 譯, “高句麗壁畫の星座圖の考定”, 『研究紀要』 3號(日本 山武考古學研究所, 1998)로 번역되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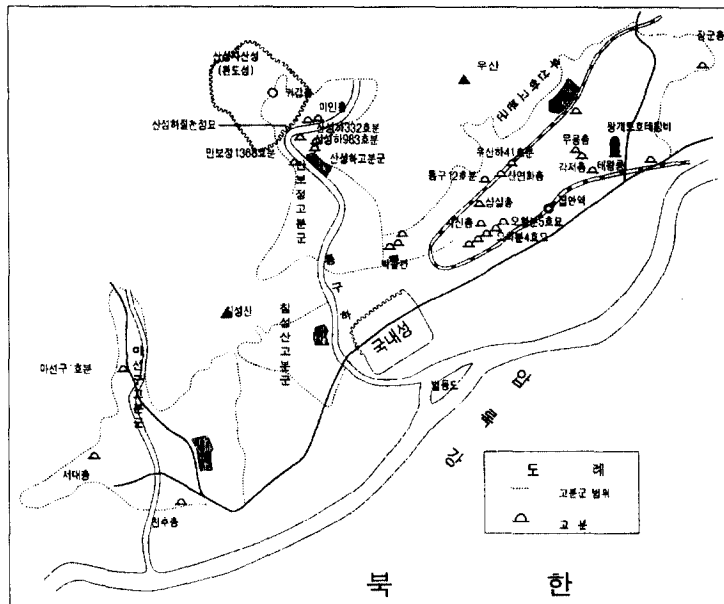


그림 1. 집안의 고구려 벽화고분 분포도  
(KBS, 『고구려고분벽화』, 19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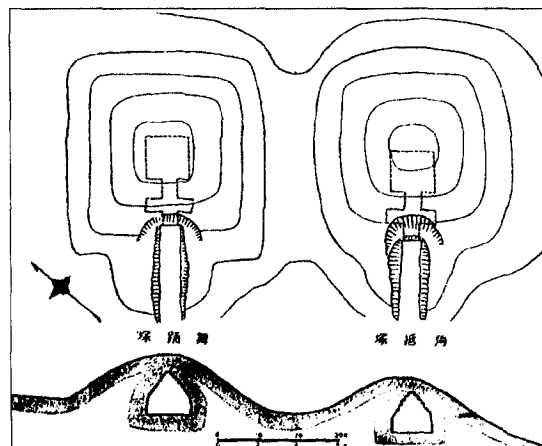


그림 2. 각저동·무용동의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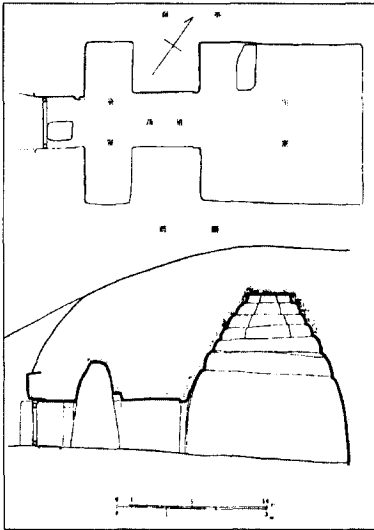


그림 3. 각저총 투시도  
(『通溝』卷下,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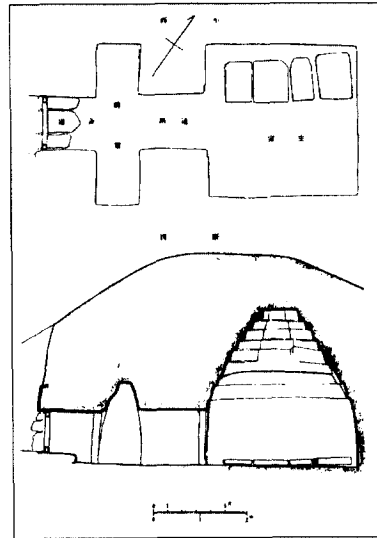


그림 4. 무용총 투시도  
(『通溝』卷下, 194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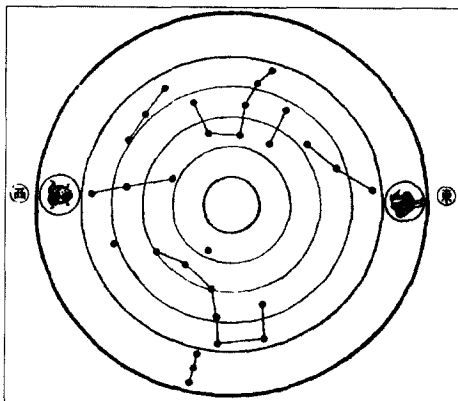


그림 5. 각저총 별자리 (中村清兄,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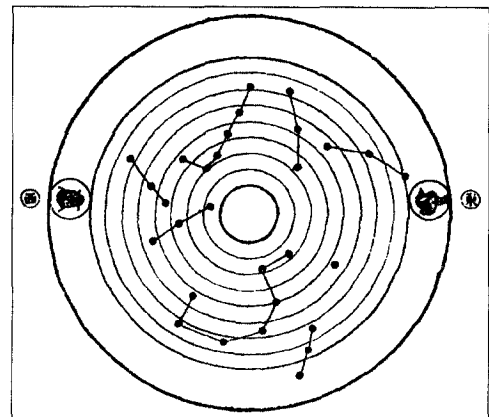


그림 6. 무용총 별자리 (中村清兄, 19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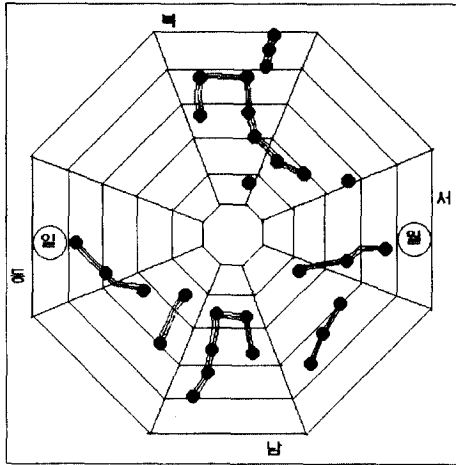


그림 7. 각저총 안칸 천정 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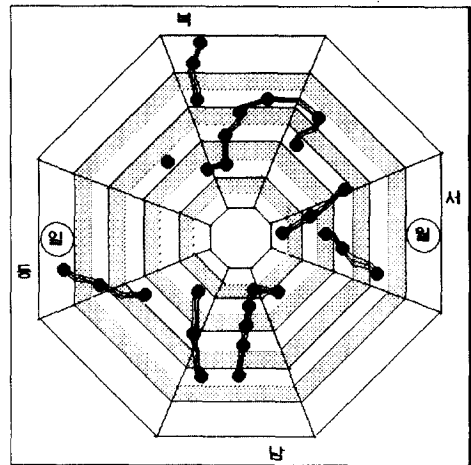


그림 8. 무용총 안칸 천정 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中村清兄은 붉은색(각저총) 또는 누런색(무용총)의 圓圈을 세 줄의 연결선으로 묘사한 일련의 星宿圖가 단순한 문양이 아니라 28수 중의 주요한 실제 7개 별자리를 매우 충실하게 표현한 것이라 평가하면서 다음과 같이 동정하였다.<sup>6)</sup>

먼저 三足鳥의 태양이 있는 쪽이 동쪽에 해당하며, 그 日像 윗쪽의 三星은 二十八宿의 東宮蒼龍을 대표하는 心宿에 상당하며, 그 옆의 二星(각저총) 또는 三星(무용총)은 房宿로 동정하였다. 중국의 성수도에서 房宿는 대개 4성으로 표현되지만, 위치상으로 보아 이를 간략화시킨 것으로 보았다.

다음, 남쪽의 6성은 南宮을 대표하는 柳宿로 比定하였다. 다만 柳宿가 8성인 점이 문제되지만 그 형상이 일치한다고 하였다.

다음, 蟾蜍가 있는 달은 서쪽 방향인데, 그 月像의 윗쪽에 있는 두 개의 별자리가 西方七宿의 대표격인 參宿와 嘴宿일 것으로 비정하였으며, 다만 嘴宿 대신에 伐星일 가능성도 남겨두었다.

다음 북쪽의 두 성수 중 3성으로 된 것은 北方玄武의 中宿인 虛宿로 보이기도 하지만, 허수는 2성이므로 차라리 危宿와 일치하는 모양이라 하였다. 그 앞의 7개 별로 된 것은 28수의 어떤 것에서 찾아야 되지만, 梅山里古墳의 예를 들어 北斗七星 이외의 다른 별자리로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6) 中村清兄, “高句麗時代の古墳について”(1936), pp. 385-387.

끝으로, 나머지 한 두 개의 홀별(單星)도 北斗의 주변에 있으므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듯하지만 어떤 별인지 알기 어렵다면, 五流星 중에서 그 위치에 따라 年을 알려주는 歲星(木星)과 분방하게 움직이는 熒惑星(火星) 혹은 北宮의 神인 辰星(水星)이 아닐까 하였다.

② 그런데, 이상의 동정 결과는 그 20년 뒤인 1950년대의 堀淳二에 의해 비판받는다. 堀淳二는 “高句麗古墳の星辰圖について”(1954)에서 당시까지 알려진 7기의 별자리 고분들인 通溝의 角抵塚, 舞踊塚, 四神塚와 평양의 狩獵塚, 星塚, 雙楹塚, 天王地神塚 등에 대해 설명하면서, 中村清兄의 각저총과 무용총 별자리 동정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였다.<sup>7)</sup>

먼저, 中村이 柳宿로 비정한 남쪽 별자리에 대해, 柳宿는 『晉書·天文志』, 『隋書·天文志』, 『步天歌』, 『宋書·天文志』, 『觀象玩占』 등에 모두 8성으로 되어 있다는 문헌 기록과 통구 사신총의 남측 천정부에도 같은 모양의 6성 별자리가 그려진 점 등으로 미루어 柳宿로 볼 수 없음을 말하였다. 대신에 전 하늘의 성좌도 중에서 이와 같은 6성으로 이루어진 성좌를 찾으면 南斗 이외에 다른 것이 아니며, 北斗에 대비되는 남두일 것으로 파악하였다.

다음, 북쪽 북두칠성 부근의 3성으로 된 별자리를 中村이 28수 중 북방의 성수인 危宿라고 하였으나, 북두와 그 근처의 3성과는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떨어져 있는 별개로 보아서는 곤란함을 말하였다. 그러면서 山東 武氏祠 石室의 〈北斗圖〉 畫像石에서 天帝의 북두 수레 옆에 시립해 있는 세 사람의 인물이 곧三公임을 근거로 하여, 각저총과 무용총의 북두칠성 옆에 나란히 묘사된 3성이 결국 삼공 별자리임을 주장하였다.

동쪽과 서쪽에 대해서는 두 무덤의 별자리 위치 관계가 서로 다르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을 피하였다.

그의 堀淳二는 쌍영총의 동쪽 2단에 묘사된 V자 모양의 7성 별자리를 『宋天文圖』를 근거로 扶筐 별자리로 비정하였으며, 남쪽의 나란히 3성으로 묘사된 두 별자리를 天廚 별자리로 파악하였다.<sup>8)</sup>

보다 주목되는 부분은 통구 사신총의 별자리(그림 20)에 대한 것인데, 북쪽의 북두와 남

7) 堀淳二, “高句麗古墳の星辰圖について”, 『史觀』 42(日本, 1954), pp. 41-49.

8) 쌍영총의 별자리와 관련하여, W. Carl Rufus는 “Astronomy in Korea,” *Transactions of the Korea Branch of the Royal Asiatic Society* Vol. XXVI(1936)에서 서양인으로서 드물게 고구려의 천문 세계관을 소개하였는데, 강서대표의 四神圖(the Four Mythological Animals)와 쌍영총의 北斗七星(the Seven Stars of the Big Dipper), 日像(a symbol of the sun), 月像(a symbol of the moon) 등을 그림과 함께 소개하면서 그것의 의미와 개념들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처럼 그의 작업은 첫 영어권 소개라는 점에서 의미가 적지 않으나 고구려의 별자리에 대한 연구라고 보기는 어렵다.

쪽의 남두 별자리 사이에 묘사되어 있는 가운데 천정석 부분의 3개 별자리에 대한 고찰이다. 이 일련의 3성 중 가장 크게 묘사된 가운데의 큰별을 帝王 또는 太一로 보았으며, 그 좌우의 작은 2개 별은 『晉書·天文志』를 근거로 太子와 庶子로 파악하였다. 이 대목은 사실상 고구려의 북극성 별자리를 주장한 최초의 작업으로 그 의의가 매우 높다고 하겠다. 다만 당시 알려진 별자리 고분이 겨우 7개 정도였으므로 체계적인 안목으로 처리되기에는 더 많은 별자리 고분이 알려지기를 기다려야 하였다.

③ 고구려 고분벽화의 성수도에 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부각된 것은 그 이후 30년을 지난 1980년대에 들어서이다. 북한의 리준걸은 “덕화리2호무덤의 별그림에 대하여”(1981), “28수를 다 그린 진파리 4호 무덤”(1981), “고구려별그림의 특징”(1983)에 이어,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1984) 등에서 별자리가 그려진 21기의 벽화고분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분류와 동정을 시도하였다.<sup>9)</sup>

이같은 리준걸의 작업은 한국의 古星圖學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전환점을 이룬 것으로 평가할 만하다. 고구려인들이 가졌던 천문학적 관심과 수준에 대한 내용을 국내외에 여실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다. 그렇지만 그가 행한 동정 작업은 대부분 잘못 옮겨진 모사도를 바탕으로 진행된 것이었음이 본인에 의해 밝혀짐에 따라 1차 연구 자료로서의 가치를 상당 부분 상실하게 된다. 본인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1996)에서 이 문제를 자세하게 검토 비판한 바 있으며, 거기서 오류를 수정한 새로운 별자리 모사도를 제시하였다.<sup>10)</sup>

리준걸이 행한 오류는 무엇보다도 각저총과 무용총의 성수도 동정에서 잘 나타나 있다.<sup>11)</sup> 中村清兄이나 堀淳二가 북두칠성으로 파악한 별자리를, 리준걸은 남쪽의 별자리로 잘못 간주하여 南方七宿 중 중앙에 해당하는 ‘星宿’(별자리 명칭임)로 제시하였던 것이다. 그에 따라 堀淳二가 南斗로 파악한 것을 리준걸은 북쪽의 별자리로 간주하였으며, 天象列次分野之圖를 근거로 하여 28수의 북방칠수 중 하나인 斗宿로 파악하였다. 두수는 南斗六星과 異名同宿로 북두칠성과는 전혀 다르다. 이같은 문제는 中村清兄이 제시한 각저총과 무용총의 모사도 방위가 천문방위도인 것을 간과한 채 지상방위도로 잘못 읽었기 때문에 남북 방향

9) 리준걸, “덕화리2호무덤의 별그림에 대하여”, 『력사과학』(1981-1: 日譯, 『古文化談叢』 12, 1993): “28수를 다 그린 진파리 4호 무덤”, 『력사과학』(1981-3); “고구려별그림의 특징”, 『력사과학』(1983-2);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 『고고민속논집』 9집(1984).

10) 김일권(金井塚良一 日譯), “高句麗壁畫の星座圖の考定”(1998)에서는 리준걸의 모사도와 본인의 새로운 그림이 함께 실려 있기 때문에 비교 작업이 용이하다.

11) 리준걸, “고구려 벽화무덤의 별그림에 대한 연구”(1984), 33-43쪽.

을 거꾸로 적용하여 동정한 데서 빚어진 것이다(그림 9).

다음 동쪽 별자리에 대해서, 리준걸은 각저총의 3성 별자리는 가로놓였다 하여 心宿가 아닌 房宿로, 2성 별자리는 角宿(2성)로 파악하였으며,

무용총의 동쪽 별자리 중 가로놓인 3성은 房宿로, 세로놓인 3성은 心宿로 각기 비정하였다.

서쪽 별자리에 대해서는 천상열차분야지도와 진파리4호무덤의 동정을 근거로 하여 가로놓인 3성은 參宿로, 세로 놓인 3성은 觜宿로 동정하였다.

끝으로, 堀淳二가三公으로 동정한 별자리를 리준걸은 남쪽의 별자리로 보았으며, 진파리4호무덤의 동정 결과를 근거로 남쪽 별자리의 翼宿라고 하였다. 익수는 22개 가량으로 이루어진 날개 모양의 복잡한 별자리 모양인데, 진파리4호무덤에 3성으로 간략화된 경우가 있다 하여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 해석에 적용한 것이다. 그렇지만 이것은 북쪽의 별그림을 남쪽으로 잘못 파악한 채 진행한 것이기 때문에 이 동정 작업은 무의미하다.

그외 한 개(무용총) 또는 두 개(각저총)의 홀별에 대해서, 고구려인들이 천문학적으로나 점성술에서 중요하게 취급하던 상서로운 별이며, 그 중 하나는 남쪽의 老人星일 것으로 보았다. 이 역시 북쪽의 별을 남쪽으로 잘못 간주한 것이므로 다시 접근되어야 할 것이다.

④ 이상 각저총과 무용총을 중심으로 개략적인 고구려의 별자리 동정 연구사를 살펴보았다. 특히 리준걸의 고구려 별자리 연구는 그것이 지니는 의의가 결코 작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산견되어 있는 오류로 인하여 빛이 바랜 감이 없지 않다.

본인은 그같은 리준걸의 오류를 전면 재검토하면서 부분적으로 여러가지 별자리에 대한 동정 작업을 수행한 바 있으며, 나아가 고대 한중일의 고분벽화에 묘사된 성수도에 대한 비교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sup>12)</sup>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1996)에서 본인은 리준걸이 제시한 21개의 고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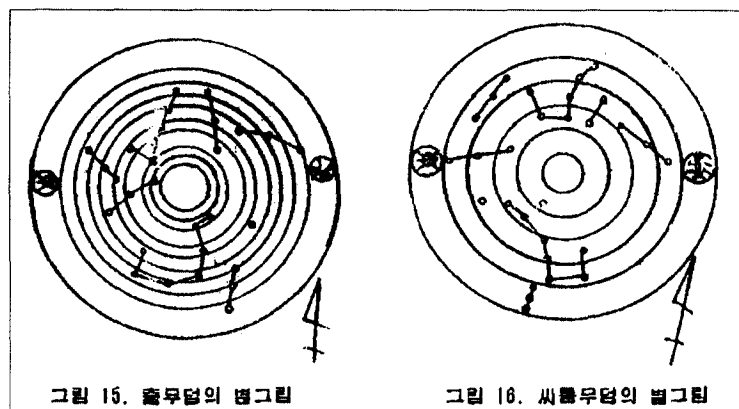


그림 9. 리준걸의 각저총과 무용총 모사도  
(『고고민속논집』 9, 1984)

외에 안악3호분(357년)의 천정부분에도 일월 및 별자리가 그려져 있음을 추가로 확인하였으므로, 현재 고구려의 별자리 고분은 총 22개로 정리된다. 그외 삼실총(5세기 전반)의 경우 제2널방과 제3널방의 두 곳에 별자리가 더 확인되었으며, 쌍영총(5세기 말)의 경우 훨씬 더 많은 별자리가 찾아지는 등 리준걸이 빠뜨린 많은 별자리를 추가하였다. 또한 은하수 그림이 있는 덕흥리고분(408년)이나 28수 그림과 함께 傍題가 있어 매우 중요한 덕화리 2호분(5세기 말-6세기 초)의 경우처럼 리준걸이 방향이나 위치 갯수 등 잘못 표기한 부분을 모두 재검토하여 바로 고쳤다.

이 기초 자료 검토를 바탕으로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1996)에서 고구려인들의 주요한 별자리 체계를 천착하였다. 22기 별자리 고분을 대상으로 고찰한 결과 북쪽에는 北斗七星을, 남쪽에는 南斗六星을, 동쪽에는 東雙三星을, 서쪽에는 西雙三星을 그린 빈도가 매우 높았는데, 이는 고구려인들이 중시한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의 四神圖 체계와 같은 四方位 우주론적 맥락에서 이해되었으며, 본인은 이를 동서남북의 「사방위 별자리」 시스템으로 범주화하였다. 그런데 사방위 별자리 방식은 본격적인 사신도가 그려지기 전인 각저총이나 무용총에서 이미 적용되어 있으며, 그 이전의 안악1호분(4세기 말-5세기 초)이나 덕흥리고분(408년) 등에서도 유사한 맥락이 보인다.<sup>12)</sup> 따라서 사방위 별자리 방식은 사신도보다도 먼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고구려인들의 천문 방위 사상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제재라 하겠다.

12)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 『白山學報』 47호(1996); (金井塚良一 日譯), “高句麗壁畫の星座圖の考定”, 『研究紀要』 3號(日本 山武考古學研究所, 1998);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 관념 체계 연구”, 『震檀學報』 82호(1996); “고구려 고분벽화의 天文思想 특징: ‘三重 天文 方位 標指 體系’를 중심으로”, 『고구려연구』 3집(1997); “리준걸, 「고구려고분벽화를 통해본 고구려의 천문학발전」에 관한 토론”, 『고구려 고분벽화』 (1997년 7월 제3회 고구려 국제학술대회 발표논문집, 韓國 高句麗研究會・日本 東京 學習院大學・在日本朝鮮歷史考古學協會 共同主催. 이는 『고구려연구』 4집 재수록, 1997); “별자리형 바위구멍에 대한 고찰”, 『古文化』 51집(1998);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 『고구려연구』 5집(1998); “北極星의 위치 변화 및 漢代의 天文 宇宙論: 元代 永樂宮 三清殿 朝元圖의 해석과 관련하여”, 『도교문화연구』 13집(1999); “天文 正統論으로서의 漢唐代 五德受命論과 三統 思想 研究”, 『한국사상사학』 12집(1999); “魏晉 隋唐代 古墳壁畫의 天文星宿圖 고찰”, 『한국문화』 24(1999); “고구려인들의 별자리 신앙”(한신대 宗教文化研究所, 1999년 학술발표논문); “古代 中國과 韓國의 天文思想 研究: 漢唐代 祭天儀禮와 高句麗 古墳壁畫의 天文圖를 중심으로”(서울대 종교학과 박사학위논문, 1999).

13) 각저총에는 사신도가 없으며, 무용총에는 현무도가 없이 청룡, 백호, 주작이 그려져 있다. 이 점은 각저총이 무용총보다는 앞선 시기의 것으로 보는 하나의 근거가 된다. 안악1호분의 북과 남에는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동쪽에는 일직선 형태의 삼성이, 서쪽에는 N자형 4성이 그려져 있다. 덕흥리고분에는 역시 남북에 북두칠성과 남두육성이 자리하며, 동쪽에 쌍삼성과 A자형 5성이 있으며, 서쪽에는 W자형 5성과 U자형 7성 별자리가 묘사되어 있다.

### 3.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그림 동정

㉑ 본인은 이상과 같은 작업 과정에서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를 다음과 같이 동정하였다.

우선, 북쪽의 7성은 中村淸兄과 마찬가지로 북두칠성임이 뚜렷하다. 북두칠성은 22기 별자리 고분 중에서 19기에 21개<sup>14)</sup>가 그려져 있으며, 그 형태상 두 종류로 구분된다. 실제 밤하늘에 걸려있는 것과 같은 ㄷ자 방향의 것(제1형)은 13개, 이와 좌우대칭되는 비관측적인 S자형(제2형)의 것으로는 8개 정도가 확인된다.<sup>15)</sup>

이같은 빈도는 대부분의 별자리 고분에 북두칠성이 그려져 있다는 말이 되며, 고구려인들의 천문 세계관에서 북두칠성이 매우 중요한 별자리임을 알게 된다. 주지하다시피, 북두칠성은 斗建의 방향에 따라 계절이나 시간을 알려주는 자연의 커다란 시계 역할을 해오던 것이며, 대평원이나 망망대해에서도 방위를 잃지 않게 하는 중요한 밤하늘의 지표이다. 벽화에 묘사된 칠성도는 이러한 고구려 사회에서의 실제적인 요청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더구나 남북에서 서로 크게 호응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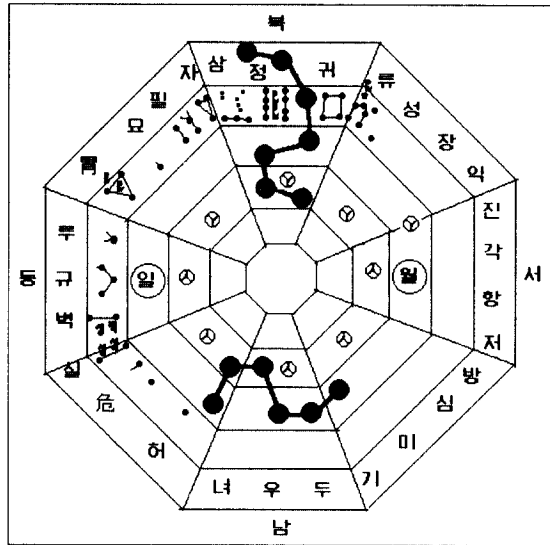


그림 10. 덕화리2호분 일월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 14) 본인은 지금까지 북두칠성 그림을 20개로 판독하였으나, 미처 장천1호분의 앞칸 안쪽 칠성단 받침대 부분의 동그런 원 속에 작은 일곱 개의 점으로 이루어진 것이 북두칠성임을 간과하였다. 이에 이를 추가하면 모두 21개가 된다. 그리고 기존에 이 장면의 대좌를 禮佛壇이라 하였으나, 거기에 ㄷ자형의 북두칠성이 분명한 만큼 '七星壇'이라 부르는 편이 보다 記述的인 태도라 생각된다. 『조선유물유적도감』(6), 도판번호 97 <앞칸안쪽 천장불공도>; 김일권, "고구려인들의 별자리 신앙"(1999).
- 15) 제1형은 옆으로 누운 모슴의 각저총, 삼실총, 천왕지신총, 장천1호분 남쪽과 칠성단 부분, 수렴총, 통구사신총, 집안4호묘, 집안5호묘, 진파리4호분 등과 세워진 형태를 보이지만 회전했을 때 같은 모양이 되는 대안리1호분,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분의 것이 있다. 제2형은 안악1호분, 덕흥리고분, 약수리고분, 장천1호분 북쪽, 무용총, 복사리고분의 것이 해당하며, 이외 쌍영총이나 안악3호분의 것은 독법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제2형 마인드와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곳에서 함께 처리하였다.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 考定"(1996).

南斗六星과 北斗七星의 구도에는 延命 長壽와 死後 安寧을 바라는 생사관 또는 내세관념이 반영되어 있어, 그들의 우주론적 세계관 이해에 매우 중요하다.

② 다음 남쪽의 6성은 덕화리1호분(5세기 말-6세기 초)이나 덕화리2호분(5세기 말-6세기 초) 등과의 비교 검토를 통하여 南斗六星으로 파악하였다. 堀淳二의 지적처럼 이를 柳宿로 보기에는 무리가 많은데, 별자리 갯수나 모양이 다른 점과 다른 무덤에서 柳宿로 상정될 만한 것이 아직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매우 강조한 南斗六星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sup>16)</sup>

南斗六星은 본래의 신분이 28수 중 北方七宿의 하나인 斗宿(궁수자리  $\phi, \lambda, \mu, \sigma, \tau, \zeta$  Sgr)이며, 그 모양이 北斗와 비슷하므로 남쪽의 국자라는 의미의 南斗로도 불리게 되었다. 28수 별자리와 방제 글자가 묘사된 덕화리2호분의 성수도를 보면, 28수로서의 斗宿 외에 北斗에 대응되는 南斗六星을 다시 그려놓음으로써 좀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그림 10). 그런데 이 南斗는 거각도가  $116^\circ$  로써 28수 중 가장 남쪽에 있는 별자리이므로 우리나라의 경우 대개 여름 한철에 한정되어 관측되며, 그 성좌의 상대크기도 북두의 1/3 가량이어서, 북두칠성과 짝이 되기에는 매우 미미한 별자리이다(그림 11).

16) 그런데 이용삼 선생은 토론문에서 다음과 같은 천문학적 측면에서 柳宿로 볼 수 있다는 반론을 제기하였다. “천문학적인 측면에서 하늘의 별자리에 방향성을 나타내는 경우는 북쪽하늘의 별자리를 제외하고는 표현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하늘의 별들은 북극을 중심으로 지평의 동쪽방향에서 서쪽방향으로 운행하기 때문이다. 굳이 별들을 북쪽과 대비하는 남쪽별을 지칭하라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별을 지칭할 수 있는데, 유수나 남두육성 또한 지평의 동쪽방향에서 떠서 자오선상을 남중하고 다시 서쪽지평선으로 지므로 남쪽 하늘의 성수로 볼 수 있다. 유수( $\theta$ Hy)는 남중고도가 약  $60^\circ$ 가 되며, 남두육성은 남중고도가 약  $30^\circ$  밑에서 보이므로 유수에 비하여 방향을 더 확실하게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동쪽에서 방수와 심수가 떠오르는 순간 삼수와 자수는 서쪽으로 지기 시작하는데 이때 남쪽 하늘을 바라보면 남서방향의 지평고도  $40^\circ$  부근에서 유수를 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측천문학의 입장에서 북두를 북쪽으로 삼수, 자수(또는 별성), 방수, 심수로 고정시켰을 때 남쪽 하늘은 유수를 위치시킬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남두육성은 방수, 심수가 동쪽에서 떠오른 지 2시간 반 후에 또 동쪽에서 떠오르게 되므로 동쪽 하늘을 나타내는 별과 남쪽 하늘을 나타내는 별이 동시에 하늘을 일주하게 되는 방향의 혼란이 야기된다. 그러므로 고구려인의 관념 체계를 고려하지 않는 한 관측천문학적 입장에서라면 남두육성의 경우는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견해는 고구려인의 천문 세계관을 관측 측면에서 보다 면밀히 천착하기를 요청한 대목으로 그 의의가 적지 않다. 다만 堀淳二의 비판처럼 별자리 갯수나 모양이 다른 점 그리고 다른 고분에서 아직 柳宿로 볼 만한 단서가 없다는 점에서 본인은 柳宿로 보기에는 아직까지 어렵다고 생각한다. 류수로 본다면, 류수와 북두칠성이 남북으로 대비될 만한 천문사상적 맥락도 함께 밝혀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형태상 南斗六星에 뚜렷한 덕화리 1호분·2호분이나 집안호회분 4호묘·5호묘 등의 남쪽 별자리는 또 어떻게 설명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폭넓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고구려의 ‘사방위 별자리’에 담긴 관측천문학적 측면과 천문세계관적 맥락이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고구려의 별자리 벽화에서는 대부분 北斗와 호응하는 맥락에서 묘사되어 있다. 이런 점은 같은 시기의 중국 고분벽화에 찾아보기 힘든 현상이다. 곧 방위 별자리 체계로 북두와 남두를 마련한 것은 매우 고구려적인 전통이라 하겠다.

현재 남두육성이 묘사된 고분으로는 안악1호분, 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덕흥리고분,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분, 통구사신총, 집안4호묘, 집안5호묘 등 10기이며, 이들에는 반드시 북두칠성이 북쪽에서 응수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각저총과 무용총의 남쪽 6성을 고구려의 별자리고분 전체에서 남방 방위 별자리로 채워진 南斗六星으로 해석하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안목일 것이다.

덧붙여, 남두육성이 위치한 궁수자리는 현대 천문학에서 우리 은하계의 중심 방향으로 은하수 면에서도 가장 밝고 진하게 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고구려 벽화에서 남두육성과 은하수가 관련된 장면은 덕흥리고분의 남쪽 천정 그림에서 보인다(그림 12). 남쪽 하늘 한가운데로 은하수가 길게 동남방 위쪽 모서리에서 서남방 아래쪽으로 흐르는 가운데, 그 은하수를 사이에 두고 전우와 직녀가 이별하는 장면이 있으며, 그 윗부분에 또한 남두육성과 심방육성 별자리가 서로 은하수 반대편에 묘사되어 있다. 실제 밤하늘에서도 이들은 은하수에 일부 걸쳐 있기는 하지만 은하수를 사이에 두는 형태이기 때문에, 고구려인들이 실제로 밤하늘을 관측한 내용을 그려낸 것이라 여겨지는 대목이다.

관측천문학적인 측면에서 조금더 부연하자면, 남두육성의 현재 적경과 적위값이 약  $13^{\circ} \times 9^{\circ}$ 의 폭으로 비교적 작은 크기인데 반해, 북두칠성은 약  $40^{\circ} \times 12^{\circ}$  정도로 매우 큰 편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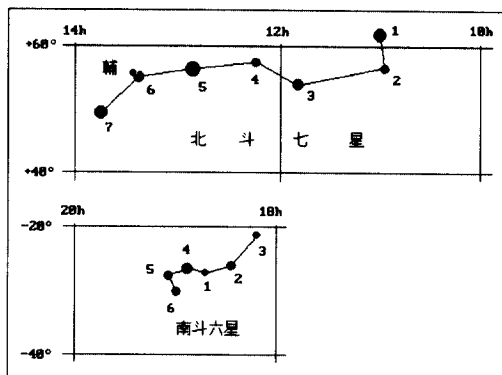


그림 11. 北斗七星과 南斗六星의 실측 대비  
(김일권, 『고구려연구』 3, 19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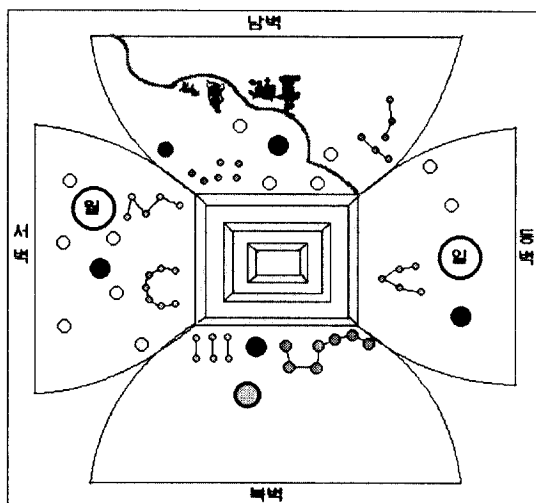


그림 12. 덕흥리고분(408)의 은하수 및 일월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속한다. 더구나 각저총과 무용총은 위도가 북위 약  $42^{\circ}$ 에 위치하기 때문에 남두육성이 남 중했을 때는 불과 지평선에서  $18^{\circ} \sim 28^{\circ}$  위에 위치하여 육안 관측이 용이하지 않다. 지평선 위에 나와있는 최대 시간도 하지날 근처에서 8.5시간 정도여서 관측 가능한 시간도 다른 별자리에 비해 짧다.<sup>17)</sup> 이러한 천문관측적인 배경 때문에 고구려의 남두육성이 주목되는 맥락에 대해 다양한 연구가 요청된다.

본인은 이에 대해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 관념 체계 연구”(1996)에서 다음의 두 가지 측면으로 개진한 바 있다.

첫째, 고구려에서 독특하게 정립된 ‘사방위 별자리 체계’ 맥락에서의 조망이다. 동서남북의 사방위 각기에 대표적인 표지 별자리를 하나씩 엮으면서 북쪽의 북두칠성과 유사한 형태를 지닌 남두육성을 남쪽의 방위 별자리로 채택하였을 측면이다. 동서의 방위 별자리에 서로 대칭되는 구조를 지닌 쌍삼성 형식이 성립된 것과 마찬가지로, 남북의 방위 별자리도 대칭적인 국자형 구조로 대립시켰을 것으로 보는 관점이다. 이같은 접근이 결과론적인 해석에 가까운 형태론적인 분석이라는 한계를 지니지만, 古星圖의 연구에서는 중요한 방법론의 하나로 기능한다.

둘째, 위진남북조시대에 전개되는 불교와 도교의 점성술적 맥락에서의 접근이다. 東晉末 楊羲(양희, 331-386)의 저작이라는 『上清經』에서 “南斗六司 主延壽, 計六宮稱爲: 第一 天府司命星君, 第二 天相司祿星君, 第三 天梁延壽星君, 第四 天同益算星君, 第五 天樞度厄星君, 第六 天機上生星君, 是爲南斗六司星君也”이라 하여, 인간의 수명을 연장하는 주관 부서를 남두육성에 두고 있다. 또한 晉代 干寶(간보) 撰이라는 『搜神記(수신기)』에서도 “南斗注生, 北斗注死”라 하여, 북두칠성이 죽음을 관장한다면 남두육성은 삶을 주관한다는 대대적 관계를 제시하였다. 이러한 점성 관념이 고구려에도 유포되면서 남북의 방위 별자리로 구축되었을 측면이다.

남두육성이 묘사된 초기의 벽화고분에 편년이 분명한 덕흥리고분을 비롯하여, 안악1호분(4세기 말-5세기 초), 각저총(5세기 초), 무용총(5세기 초) 등은 상청경의 것과 거의 동시대적인 표현이다. 문헌보다 회화 양식이 늦어지는 문화적 속도를 감안한다면, 고구려의 북두 대 남두 모티프가 오히려 선행된 작업이었을 가능성마저 상정된다. 현재까지 중국의 유물자료 중에서 山東 濟南 지역 北齊 道貴墓(571년)의 일월성수도에서 남두육성이 처음 발견되는 사실<sup>18)</sup>도 그러한 정황의 반영이라 여겨진다. 이는 고구려보다 160여년 뒤의 자료가

17) 본고의 본학술지 논문게재에 대한 심사평가문에서 참고.

18) 김일권, “魏晉 隋唐代 古墳壁畫의 天文星宿圖 고찰”(1999).

기 때문에 고구려적인 천문 모티프가 중국에 영향을 끼친 경우라고 파악된다. 이같이 고구려에서의 남두육성 운용이 매우 두드러지기 때문에 덕흥리고분 이전에 그러한 북두와 남두의 도식이 성립되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하기 어렵지만, 문헌전통이 빈약한 관계로 아직도 이상의 천착은 어려운 입장이다. 이상의 접근은 역사적인 또는 천문사상사적인 분석이라 하겠다.

끝으로, 그렇다면 천문관측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어떻게 말해질 수 있을까? 고구려의 동서 방위 별자리는 동쪽의 심방육성이 떠오르면 서쪽에서는 삼별육성이 지는 관계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쉽게 접근이 되는 반면에, 북쪽의 북두칠성에 대비되는 남쪽의 별자리를 설정하기는 매우 어렵다. 밤하늘의 별들이 북극을 중심으로 동에서 서로 회전하기 때문에 남쪽 별자리라고 대칭시킬 별자리가 수없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심수와 남두의 적경 차이가 2~3h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각기 동쪽과 남쪽을 대표하는 별자리로 삼기에는 방위 변별력이 약하다.<sup>19)</sup> 이렇게 관측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은 아직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가 어렵다. 이같은 어려움은 고구려인들이 형이상학적인 관념적 측면에서 남두육성을 사방위 별자리의 하나로 입전하여 북두칠성에 대칭시켰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에 다름 아닐 것이다. 고대인에게 천문은 천인감응적 세계관에서 조망되는 바 적지 않기 때문에, 과학사적인 측면에 못지 않게 인문사상사적인 측면을 아울러 접근하는 태도가 그들의 천문세계를 이해하는 중요한 방법론의 하나가 될 것이다.

③ 다음으로 북두칠성 자루 부분에 떨어져 있는 홀별에 대한 문제인데, 무용총에는 자루 끝쪽에 한 개, 각저총에는 자루 양쪽에 두 개가 있다.

이를 中村淸兄은 알기 어렵지만 五流星 중의 歲星(木星)과 熒惑星(火星) 또는 辰星(水星)이 아닐까 하였다. 리준걸은 이것이 별의미 없이 그려진 것은 아닐 것이라면서 고구려인들이 천문학적으로 또는 점성술에서 중요시한 상서로운 별이며, 그 중 하나는 남쪽의 老人星일 것으로 보았다. 이 중 中村의 견해는 검증하기 어려우며, 리준걸의 것은 북쪽의 별을 남쪽으로 잘못 간주한 것이므로 논외가 된다. 다만 고구려인들이 중시한 상서로운 별의 일종으로 보는 견해는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사실 이 홀별은 다른 곳에서 관련된 장면을 찾기가 쉽지 않아 해석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홀별의 특성상 어떤 맥락을 모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 해석의 실마리는 이들이 북두칠성의 주변에 위치한 별이라는 사실에서 출발한다. 이에 바탕하여 본인은 다

19) 각주 16) 참고.

음과 같은 두 가지 갈래의 해석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그와 유사한 장면이라 여겨지는 장천1호분의 남쪽 별자리(그림 13)와 연관된 해석이다.

장천1호분의 천정석 별자리는 북쪽에 S자형 북두칠성을 그리고, 다시 남쪽에 ㄷ자형 북두칠성을 그렸다. 이 둘은 흠으로 그려진 대각선을 기준으로 점대칭 모양을 하고 있고 또 그 사이에 “北斗七靑”이라는 朱書가 세로로 둘다에 걸쳐있기 때문에 둘다 북두칠성을 그린 것으로 판단된다. 그중 남쪽 북두칠성의 斗魁 옆과 斗柄 부분에 홀별 2개가 묘사되어 있다. 본인은 이를 북두칠성에다 左輔와 右弼이라는 二隱星을 합친 도교의 北斗九皇<sup>20)</sup> 별자리 관념이 아닐까 천착한 바 있다.<sup>21)</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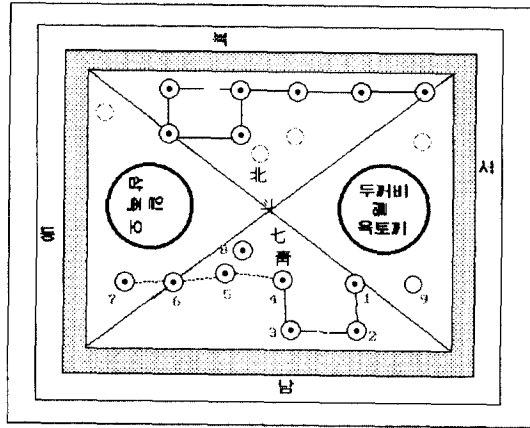


그림 13. 장천1호분 천정석의 일월칠성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번호는 필자주)

거기에는 만약 숨어있는 그 두 별을 보게 되면 長生하며 神聖을 이룬다는 점성사상이 깔려있다. 右弼은 북두 제3성( $\gamma$  UMa, Phecda)에 있다고 하지만 현재 어떤 별을 지칭하는 지 알려져 있지 않다. 左輔는 두병쪽 둘째 별( $\xi$  UMa, Mizar)과 이중성을 이루는 Alcor별로, 중국에서는 흔히 天帝를 보좌한다는 의미에서 輔星(80 UMa, Alcor)<sup>22)</sup>이라 하여 漢代 이전부터 중시되던 별이다. 그런데 장천1호분의 두병쪽 홀별 위치가 실제적인 輔星의 위치와 다르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左輔星인지 결정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별원반의 표현 양식으로 보아 장천1호분의 홀별 두 개가 북두칠성과 연관된 별임에는 분명하다 하겠다.

이런 측면들을 고려할 때, 각저총의 두 홀별 중 맨 안쪽 것은 오히려 輔星의 위치에 어울리며, 나머지 자루 끝쪽의 홀별은 右弼로 보여질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右弼星이란 가장 짙었다는 의미의 九數를 중시하는 도교적인 천문사상 맥락에서 輔星과 더불어 좌우에서 北斗를 보좌하는 별로 제창된 것이어서,<sup>23)</sup> 실제로 관측한 별로 여기기 어려운 점이 많다. 또한 『사기』나 『진서』, 『수서』의 천문지 등에서도 弼星에 대한 대목이 입전되어 있지

20) 「北斗九皇隱諱經」(『道藏』 제1064책); 「九皇圖」(『道藏』 제342책).

21)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 관념 체계 연구”(1996), 5-8쪽.

22) 輔星, 明近 輔臣親強, 斥小 疏弱(『史記·天官書』, 中華書局 標點校堪本, p. 1293); 輔星傳乎開陽, 所以佐斗成功, 丞相之象也. 七政星明 其國昌, 輔星明 則臣強(『晉書·天文志』, p. 291).



포진하여 있으며, 또한 그 大角에서 조금 연장해가면 28수의 기점인 角宿가 나온다. 이처럼 초요성은 역법과 28수의 기점을 알려주는 중요한 지표 역할을 하는 별자리로 주목되어 왔다. 게다가 성점학상에서는 주로 胡星으로 지칭되어 있다. 초요성이 밝고 크면 胡兵이 크게 일어나고 四夷가 창성하며 中國이 멸망한다고 하였다.<sup>26)</sup> 그렇다면 고구려에서는 상서로운 별이 된다. 바로 이러한 북두의 두병 끝에 위치한 招搖星을 각저총의 그 홀별로 묘사하였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무용총의 두병 끝에 있는 홀별도 그러한 招搖星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자루 끝부분에서 떨어져 있는 구도가 각저총의 그것과 유사하기 때문이다. 다만 北斗八星 곧 輔星으로 해석될 여지는 남아있다. 그 위치가 제6성 開陽星 쪽이 아니라 자루 끝에서 떨어져 있지만, 엄밀한 星圖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는 맥락에서 輔星으로 비정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물론 무용총의 홀별은 하나이므로 北斗九辰으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이상의 고찰에서, 본인은 각기 두 가지씩의 해석을 제출하였다. 각저총의 두 홀별은 우선 北斗九辰 관념으로 접근하여 開陽星쪽의 것을 左輔, 자루 끝쪽의 것을 右弼로 보는 방법이 있으며, 다른 하나는 開陽星쪽을 역시 輔星으로 보고 자루 끝쪽은 四夷의 별인 招搖星으로 보는 해석이다.

무용총의 홀별은 하나이므로 北斗九辰으로 보기는 어렵고, 대신에 각저총과 마찬가지로 輔星으로 보는 방법과 招搖星으로 보는 두 가지가 있겠다. 이같은 본고의 비정은 아직 하나의 작업가설적인 과정이므로 앞으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난다면 다시 정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④ 다음, 동쪽의 3성 혹은 2성의 별자리를 본인은 東雙三星 형식으로 해석하였다. 무용총의 것은 3성 두 개가 入자형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문제가 되지 않지만, 각저총의 경우는 3성과 2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저총의 것이 2성으로 된 데에는 두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별 하나가 박락되었을 가능성이다. 2성의 아래쪽 시작이 5단 고임 중 3단과 4단의 걸친 부분에서 시작되는데, 이에 대응되는 무용총의 오른쪽으로 빠진 3성이 4단에서 시작되는 것과 비슷하기 때문에 2성 윗부분 곧 5단에 별 하나가 더 그려졌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현재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지난 99년 8월 본인이 각저총 조사에 참여하였

26) (『招搖占』) 黃帝曰, 招搖, 尙羊也. … 一名胡星也. 與梗河玄戈列, 從北斗柄端抵大角, 近北斗者, 玄戈, 次曰招搖. 星明大, 赤角而動, 胡兵大起, 四夷主昌, 中國亡. 又曰, 其俱明, 胡利. 唐 瞿曇悉達 編(李克和 交点), 『開元占經』(長沙, 岳麓書社, 1994), p. 659.

을 때에는 이미 보존을 위한 덧칠이 되어 있어 전혀 흔적을 찾을 수 없었다. 다만 이를 가장 먼저 관찰한 中村淸兄의 자료에서 이미 2성으로 묘사되어 있으므로, 원래 2성이었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는 없다.

또 다른 가능성은 동쌍삼성의 단순한 변형으로 보는 방법이다. 리준걸은 이 별자리를 28수의 기점이면서 동방칠수에 속하는 角宿로 파악하였다. 角宿는 대개 2성으로 표현되기 때문이다. 이 견해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그렇지만 본인은 22기 별자리 고분 중에서 동쪽에 2성이 있는 경우가 거의 없고, 또한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 배치 구성이 거의 유사하다는 점을 근거로 하여 동쪽의 방위 별자리인 東雙三星 형식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 견해는 中村淸兄이 이를 房宿로 비정한 것과 다르지 않다. 房宿는 대개 4성으로 표현되지만 고구려에서는 3성으로 간략화시켜 동쪽 방위 별자리의 하나로 삼은 경우가 적지 않다.

이와 같이 각저총의 2성이 원래 3성이었는지 2성이었는지 불분명하지만, 그 자리에 해당하는 무용총에서는 3성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둘다 같은 房宿로 동정하는 편이 훨씬 설득력이 있다고 여겨진다.

본인의 東雙三星 용어는 3성이 쌍으로 서로 연관되어 의미를 띠는 별자리라는 맥락에서 사용하고 있으며, 약수리고분(5세기 초)이나 덕흥리고분, 쌍영총에서 뚜렷하게 확인된다. 안악1호분, 천왕지신총의 경우는 단독 3성으로만 동쪽 방위 별자리를 대신하고 있어 주목된다. 그외 복사리고분이나 별무덤, 우산리1호분의 동쪽 별자리도 이런 배경에서 접근되기도 한다.

동쪽의 雙三星 중 다른 하나는 中村淸兄이나 리준걸의 동정처럼 心宿로 여겨진다. 동방칠수의 대표자로 사마천의 『史記·天官書』에서는 心宿와 房宿가 제시되어 있으며, 心宿는 明堂으로, 그 중 心大星( $\alpha$  Sco, Antares, 1.0등급)은 天王으로 비견되어 있다. 房宿는 天駟(천제의 수레)라고도 하는데 天府(천제의 관부)로 여겨졌다.<sup>27)</sup>

心宿( $\alpha, \sigma, \tau$  Sco, 각기 1.0, 2.9, 2.8등급)와 房宿( $\beta, \delta, \pi, \rho$  Sco, 각기 2.6, 2.3, 2.9, 3.9등급)는 서양별자리상 각기 전갈자리의 가슴과 머리 또는 집게 부분에 해당된다(그림 15). 고구려의 東雙三星은 대개 入자형으로 엇갈리게 묘사되어 있는데, 바로 이 모양은 전갈자리에서 그대로 확인된다. 다만 방수의 4성인  $\rho$  Sco별은 3.9등급의 밝기로 다른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두우므로 이를 빼고 3성으로 간략화한 것으로 간주된다. 이는 또한 고구려인들의 관측천문학적 경험에 따른 것이라 생각된다.<sup>28)</sup> 각저총·무용총의 동쌍삼성을 전갈자리와 비

27) 東宮蒼龍, 房, 心. 心爲明堂, 大星天王, 前後星子屬. … 房爲府, 曰天駟(『史記·天官書』, p. 1295).

교하여 보면, 入자형 중 왼쪽 가로놓인 3성이 心宿에, 오른쪽 세로놓인 3성이 房宿에 대응된다(그림 15).

이같이 東雙三星은 心宿와 房宿로 구성되는 心房六星으로 비정된다 하겠으며, 단독 3성일 경우는 心宿를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심수가 방수보다 훨씬 밝은 별자리 이면서 東宮 蒼龍의 중심으로 여겨진 별자리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心宿에 대한 기사는 “熒惑守心星”(유리왕 13년=B.C. 7년 春正月), “熒惑守心”(고국천왕 8년=186년 夏4月) 등 『삼국사기·고구려본기』에 여러 번 등장하여 있으므로, 고분벽화 성수도가 그려지기 훨씬 이전에 심수에 대한 관측이 일반화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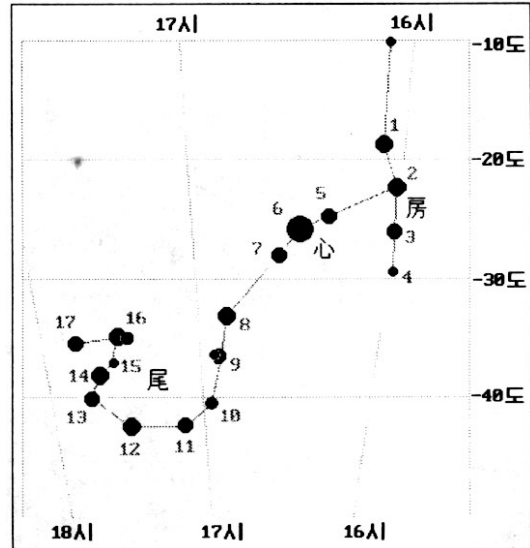


그림 15. 전갈자리 중의 心宿·房宿·尾宿  
(김일권, 『震檀學報』 82, 1996)

⑤ 다음 서쪽의 별자리는 각저총과 무용총 공히 雙三星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를 東雙三星에 대비하여 西雙三星이라 이름지었다. 中村淸兄은 이를 參宿와 觜宿로 보았으며, 자수 대신 伐星으로 볼 가능성도 남겨 놓았다. 리준걸은 中村과 같은 견해인데, 다만 구체적으로 가로 놓인 3성은 參宿로, 세로 놓인 3성은 觜宿로 파악하였다.<sup>29)</sup>

그런데 본인은 觜宿의 밝기가 參宿에 비해 매우 어두운 별이며,<sup>30)</sup> 또한 觜宿 3성의 별자

28) 이용삼 선생은 동쌍삼성에 대한 토론문에서 “오리온(Orion)의 삼수와 자수의 중간부분이 정서로 떨어질 무렵 동쪽 하늘에서는 동방칠수의 房宿와 心宿가 떠오른다. 현대 별자리로는 전갈자리이며, 북쪽을 중심으로 동쪽방향으로 120° 부분(동남쪽)에서 보인다. 전갈자리(Scorpion)는 오리온과 대칭적인 방향이므로 동시에 동서방향의 지평선 부근에서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북쪽 하늘의 北斗와 동쪽 하늘의 房宿와 心宿, 서쪽 하늘의 參宿·觜宿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때 북위 40° 부근에서는 伐星이 겹기 때문에 볼 수 없으나 방향성을 지시하는 측면이라면 동쪽 하늘은 틀림없다)”라 하여 고구려의 동쌍삼성과 서쌍삼성이 밤하늘의 동서로 지고 뜨는 모습을 천문학적으로 잘 설명하고 있다.

29) 이용삼 선생은 서쌍삼성에 대한 토론문에서 “삼수와 별성의 시야각은 약 5°.6, 삼수와 자수의 시야각은 7°.3으로 모두 10° 안쪽으로 근접하게 위치”하고 있고, “삼수에 대응하는 자수와 별성의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어떤 성수인가에 대한 천문 세계관적 접근은 더 지켜볼 문제인 것 같다. 다만 고구려인의 관념체계의 더깊은 연구결과에 따라 올바른 동정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별성과 자수 어느 쪽에 대한 견해를 유보하였다.



되었으며, 가운데 옆으로 놓인 三大星은 三將軍으로, 그 아래 작은 三小星의 伐星은 하늘의 都尉나 小將軍 또는 胡國이나 鮮卑國을 주관하는 별자리로 이해되었다.

고구려의 西雙三星은 이와 같은 參伐六星을 표현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약수리고분의 西雙三星은 가로놓인 3성과 세로놓인 3성의 人자 모양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그림 17), 參伐六星의 실제 관측 구조와 일치됨을 잘 보여준다. 곧 參宿의 가로놓인 三大星과 그 아래 세로놓인 伐三星의 구조가 人자형 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그림 16). 다만 각저총과 무용총의 西雙三星 구조가 이와 다소 다르지만, 보다 일반적인 人자형 형식의 변형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다.

서쪽 방향의 人자형 雙三星은 각저총, 무용총 뿐만 아니라 약수리고분, 쌍영총 등에서도 발견되며, 천왕지신총의 단독 三星도 역시 이 유형에 포함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때의 단독 西三星은 西宮 白虎의 대표적인 參宿일 것이다. 그외 북사리고분이나 별무덤, 우산리1호분의 것도 이런 맥락에서 접근할 여지가 많다. 그런데 이런 서쪽의 방위 별자리에 雙三星 형식이 아니라 안악1호분의 경우는 N자형 별자리, 덕흥리고분은 W·U자형 별자리가 그려져 있어 동서의 대칭성을 어느 정도 파괴하고 있는 점도 주목된다. 이들은 서쪽 방위 별자리의 변형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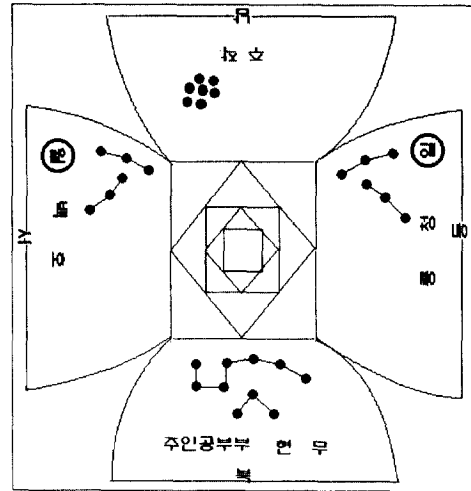


그림 17. 약수리고분 인간의 일월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 4. 고대 한중의 북극성 별자리 비교 검토

마지막으로 각저총과 무용총의 북두칠성 옆에 묘사된 일직선 형태의 3성 별자리에 관한 것이다. 이 북쪽의 3성 별자리에 대해서 中村淸兄은 28수 중 북방칠수의 하나인 危宿로 보았으며, 堀淳二는 三公으로 파악하였으며,<sup>30)</sup> 리준걸은 남쪽 방위로 잘못 읽어 남방칠수의 하나인 翼宿가 간략화된 것이라 하였다.

이같은 고찰 중에서 리준걸의 견해는 방위를 잘못 읽은 것이므로 논외가 되며, 中村의 비정은 지나치게 28수 위주로 해석하려 하였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며, 堀淳二의 견해는 그 당시 제시된 고구려의 별자리 고분이 겨우 7기 정도에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한 것이기 때문에 종합적인 맥락이 결여된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그가 말한三公은 『진서·천문지』에 묘사된 별자리인데, 斗杓의 남쪽 3성 또는 斗魁의 서쪽 3성을 일컬으며, 德化를 선양하고 七政을 고르며 음양을 조화시키는 하늘의 관리로 설명된다.<sup>37)</sup> 그러나 이 별자리는 『사기·천관서』에서 북극성 옆의 것으로 묘사되어 있었던 것이며,<sup>38)</sup> 더구나 아직三公의 3성 중 21, 24 CVn(사냥개자리, 각기 5.2, 4.7 등급) 등 2개만 동정되어 있고 나머지 하나는 비정되어 있지 않을 정도로<sup>39)</sup> 그렇게 주목되는 별자리는 아니다. 이와 같이 각저총 등의 북쪽 3성을三公으로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堀淳二가 통구 사신총의 북쪽 3성을 해석하면서 그 중 가운데 大星을 帝王 또는 太一로, 그 양옆의 두 작은 별을 太子와 庶子로 비정한 견해는 좋은 참고가 된다.

본인은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1998)에서 다음과 같은 측면에 주목하여 통구 사신총뿐만 아니라 각저총이나 무용총 등 많은 곳의 북쪽 3성을 북극성 별자리로 비정하고자 하였다.

먼저 이같은 북쪽의 3성은 형태상 두 종류로 구분된다. 일직선 배열의 3성은 집안오회분 4호묘와 통구 사신총, 각저총, 무용총, 진파리4호분 등에서 보인다. 다음 삼각형 모양은 약 수리고분의 八자형 3성에서 보인다(그림 17). 집안오회분 5호묘의 경우도 삼각형을 띠는데, 북두칠성 아래의 천정석 모서리 부분에 그린 관계로 발생된 형태이므로 일직선 모양으로도 읽게 된다. 다만 집안오회분 4호묘와 여러가지 측면에서 동형의 벽화 내용을 지니므로

36) 이용삼 선생은 북두 주변의 삼성에 대한 토론문에서 “사방위 별자리는 하늘에서 명확한 형상을 하고 있는 비교적 밝은 별자리로 결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들은 북-북두칠성+三星(?), 남-南斗六星(혹은 柳宿), 동-心宿+房宿, 서-鶩宿+參宿(또는 參宿+伐三星)이라고 가정하면, 하늘에서 동편의 심수와 방수가 차지하는 영역은 약 11°.1이며, 서편의 자수(또는 삼수)와 삼수(또는 별삼성)의 영역은 5°.6~7°.3가량이고, 남쪽의 두수(혹은 류수)는 9°.6이 된다. 이것은 사방위 별자리로 사용하기 위한 가장 용이한 적용이라고 하겠다. 동일한 방법으로 북두칠성 부근의 삼성을 危宿라 가정하면 그 영역은 110°.9이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삼성을 위수로 보는 것은 관찰경험적으로는 타당하지 않은 결과라 하겠다”라고 하여, 사방위 별자리에 대한 천문학적 의의를 재고하였다. 매우 경청할 만한 접근 방법이라 하겠다. 그리고三公說에 대해서는 “그 별들의 등급이 4.6등급에서 5.9등급 사이로 그다지 밝지 않고, 상징적 의미도 크지 않음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하였다.

37) 杓南三星及魁第一星西三星 皆曰三公, 主宣德化, 調七政, 和陰陽之官也. 『진서·천문지』, p. 291.

38) 中宮 天極星, 其一明者, 太一常居也. 旁三星三公, 或曰子屬. 後句四星, 末大星正妃, 餘三星後宮之屬也. 『사기·천관서』, p. 1289.

39) 大崎正次, “中國の星座・星名の同定一覽表”(1987).

같은 일직선 형태의 3성이라 하게 된다. 결국 약수리고분을 제외하곤 6기에서 일직선 형태의 3성을 그린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통구 사신총과 집안오회분 4호묘·5호묘의 것은 가운데가 크게 그려진 大小 3성 형식이며, 그 위쪽의 북두칠성과 연관되어 이해된다(그림 18, 19, 20).

그렇다면 북두칠성 아래에 大小三星으로 그릴만한 별자리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하게 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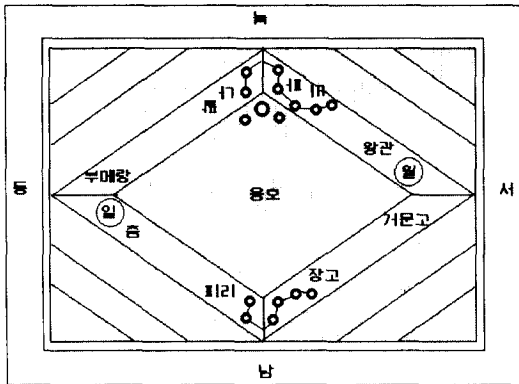


그림 18. 집안오회분5호묘 일월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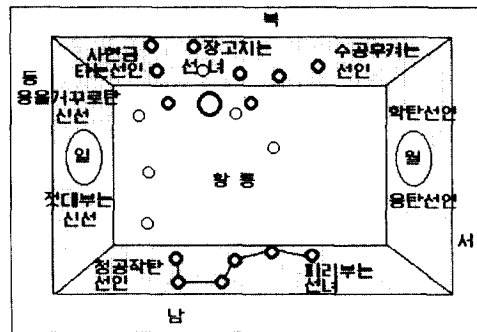


그림 19. 집안오회분4호묘 일월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다. 堀淳二는 중국의 궁전 건축이나 묘실 축조 양식에서 하늘의 紫微宮을 모방한 전거를 들어 고구려의 벽화고분 역시 하늘의 天空 또는 紫微宮을 구현하려고 하였을 것이라는 맥락 하에 통구 사신총의 大小 三星을 帝王과 太子·庶子로 구성된 北極星 별자리로 제시하였다.

본인도 이 견해에 동의하며, 같은 시기의 중국 古星圖에서 5성으로 북극성 별자리를 표현한 방식과 매우 대조적인 점도 주목된다. 이 점은 중국과 다른 고구려의 관측 경험이나 천문 사상을 담아낸 중요한 대목이라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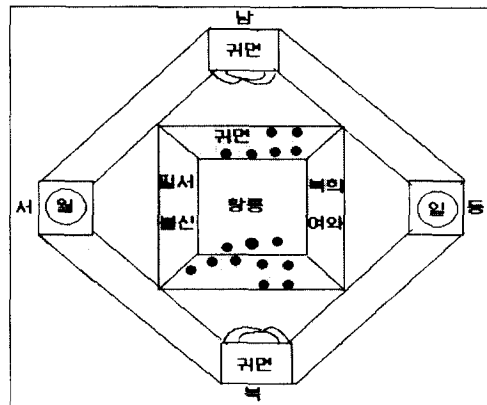


그림 20. 통구사신총 일월성수도  
(김일권, 『白山學報』 47, 1996)

겨진다. 중국의 古星圖學에서 현전하는 전천 천문도 중 最古의 것이라 중시되는 敦煌星圖 甲本과 乙本에서는 北極五星座와 四輔四星座<sup>40)</sup>로 중궁을 처리하였다(그림 21, 22). 이에 비해 고구려는 北極三星座와 北斗七星座로 중궁을 처리하는 양식이 발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곧 중궁의 표현에서 중국의 것이 ‘북극5성-사보4성’ 형식이라면, 고구려는 ‘북극3성-북두7성’ 형식을 그 전통으로 삼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런 맥락에서 약수리고분의 人자형 3성도 북극성 별자리로 간주되며, 각저총과 무용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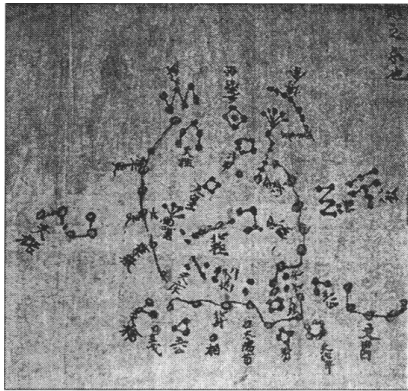


그림 21. 돈황성도 甲本  
(『中國天文文物論集』, 19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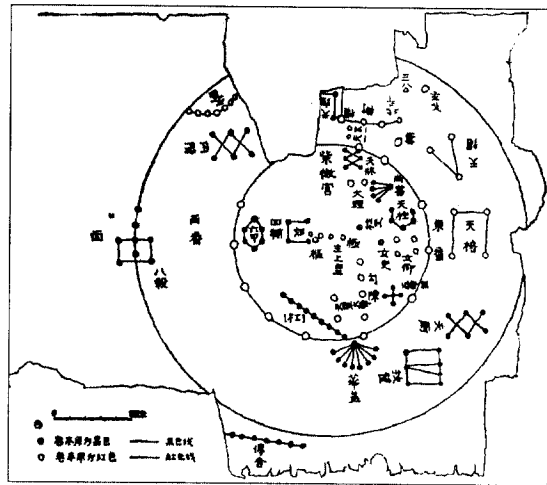


그림 22. 돈황성도 乙本  
(『中國天文文物論集』, 1989)

의 북쪽 3성도 고구려 전통의 北極三星座로 보는 해석이 고구려의 천문 세계관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길이라 여겨진다. 약수리고분의 그 3성을 리준걸은 직녀성으로 해석하였으나, 직녀성이 북쪽 하늘에 북두칠성과 더불어 오는 경우는 없으므로 본고와 같은 해석이 더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보다 결정적인 근거는 진파리4호분의 중궁 별자리에서이다. 사실 750여개나 되는 많은 별을 담고 있는 고구려 벽화에서 천문성수 관측의 기준이 되는 북극성을 그리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오히려 어려운데, 문제는 대부분의 고구려 벽화 별자리그림이 전천천문도 형식이

40) 四輔四星은 실제 관측적인 별자리라기보다는 唐代 즈음에 새로운 북극성으로 부각된 天樞星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작위적으로 창출한 맥락이 짙은 별자리이다. 『사기·천관서』에는 없던 별자리이며, 『진서·천문지』나 『수서·천문지』 등 唐代에 들어와서 비로소 입전되어 있는 점도 그같은 정황을 반증한다.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북극성 별자리에 관한 연구”(1998).

아니라 사방위 형식으로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각저총과 무용총 역시 사방위 묘사 형식이기 때문에 천정석 부근을 천문도의 중심인 북극으로 설정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각저총의 천정석에 가까이 위치한 홀별을 북극성으로 접근하기가 곤란하며, 북쪽의 북두칠성과 관련된 아래쪽 3성을 북극성으로 보고자 한 것이다.<sup>41)</sup>

진파리4호분은 전천천문도 형식이기 때문에 고구려인의 중궁 별자리를 파악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된다. 진파리4호분은 비중에 따라 별의 크기를 다르게 묘사하였는데, 가운데에 주변의 28수보다 크게 그려진 두 가지의 별자리가 눈에 띈다. 그중 별의 크기가 가장 큰 북쪽의 것은 분명한 북두칠성으로 생각되며, 그 다음 크기의 3성으로 된 별자리는 천정 막음돌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하여 있으므로 북극성 별자리로 여겨진다(그림 23).

그런데 리준걸은 “28수를 다그린 진파리4호무덤”(1981-3년)에서 다른 별자리보다 크게 그려진 이 3성과 그 동쪽의 작은 별 하나까지 연결한 4성을 천극성 곧 북극성 별자리로 보았다. 천극4성으로 본 데에는 『사기·천관서』의 맥락에서 접근하였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지만 그 원점의 크기가 다른 작은 별 하나는 동쪽의 囊宿나 다른 별자리로 묶어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왜냐하면 주변의 28수에 비해 원점의 크기가 유달리 크다는 것은 그 자체로 독립된 하나의 별자리일 것이며, 또한 다른 많은 곳에서 북두칠성과 연관된 3성 형식이 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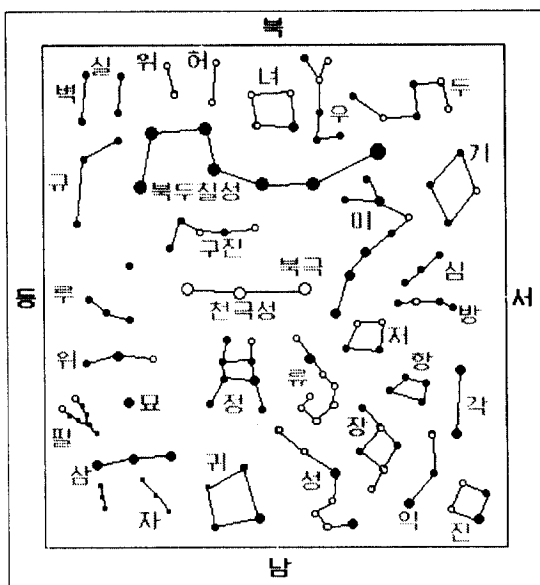


그림 23. 진파리4호분 천정성수의 북극삼성-북두칠성 형식과 이십팔수도 (리준걸, 『역사과학』, 1981-3의 그림을 천극3성으로 수정한 것임. 글자는 필자주)

41) 이용삼 선생은 토론문에서 “집안 4·5호묘와 통구 사신총의 3성을 북극삼성좌로 보는 견해에는 찬동하나 각저총과 무용총의 삼성을 동일한 견해로 파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분리하여 접근할 것을 제시하였다. “사방위라는 측면에서도 북극삼성좌는 천정 부근인 자미원의 안쪽에 위치한 것이라야 그 방향성의 의의를 가진다”고 하였으며, 그와 같은 연장선에서 북두칠성 주변의 홀별을 북극성 별자리였던 帝星( $\beta$  UMi) 또는 句陳大星( $\alpha$  UMi, 지금의 북극성), 天樞星(당시의 북극성)일 가설을 제기하였으며, 그중 帝星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자 하였다. 이는 왕을 의미하는 제성이 황제의 마차를 형상화하고 있는 북두칠성에 탑승하여 삼공(삼공좌)의 보좌를 받으며 천하를 의미하는 하늘을 운행한다는 내려티브 구조하에 접근한 시각이다. 그러나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그림이 전천천문도 형식이 아니기 때문에 가운데 천정석쪽을 자미원으로 설정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전되므로 '북두칠성-북극삼성'으로 보는 편이 고구려 벽화에서는 더욱 일반적인 형태라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천극4성이 아니라 3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리준걸의 그림에서 다른 28수 크기와 같은 작은 별과의 연결선을 없애야 할 것이다. <그림 23>은 이를 반영하여 새로 마련한 그림이다.

이렇게 전천천문도 형식인 진파리4호분에서 가장 크게 그려 강조한 별자리가 北極三星과 北斗七星이다. 이같은 점은 다른 별자리 고분들의 경우에서 이 두 별자리를 주로 북방의 방위 별자리로 대표하여 그린 것과 같은 맥락이라 하겠다.

이 문제는 고구려의 벽화 성수도 전통을 계승한 것으로 여겨지는 고려시대의 고분 별자리를 통하여 다시 접근된다. 왜냐하면, 고려시대의 무덤 벽화 중 안동 서삼동 벽화묘(12세기 초)의 천정 별자리 중 가운데의 해와 달 사이에 북두칠성과 삼각형 모양의 세 별이 겹쳐진 9성 형태가 확인되고,<sup>42)</sup> 또한 파주 서곡리 벽화묘(14세기)의 천정 돌판에도 北斗七星과 함께 北極三星이 커다랗게 묘사되어 있기 때문이다(그림 24, 25). 이렇게 보면, 고구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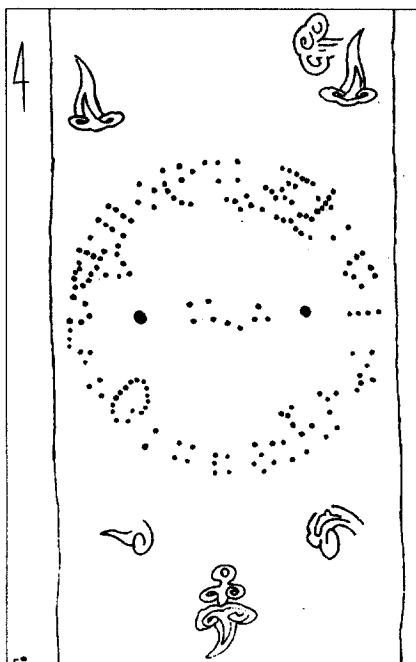


그림 24. 고려 서삼동 벽화묘의 천정성수도  
(『한국의 천문도』, 199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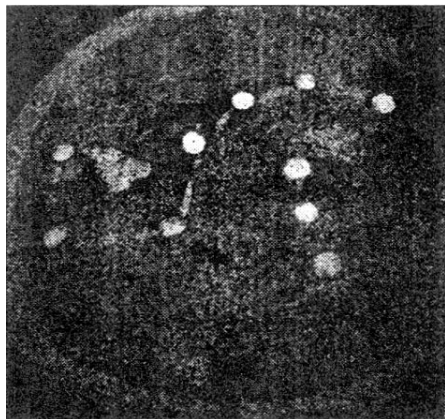


그림 25. 고려 서곡리 벽화묘의  
北斗七星-北極三星 별자리  
(『한국의 천문도』, 1995)

와 고려의 고분벽화에는 북두칠성과 더불어 많은 빈도의 북극3성을 그린 셈이 된다. 이 점은 도리어 고구려와 고려의 천문 계승성을 드러내는 주요한 요소의 하나로도 작용할 것이다.

## 5.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는 일제시기부터 매우 주목되었던 것으로, 고구려의 천문 세계관을 드러내는 데 적지 않은 공헌을 하여왔다. 두 무덤에는 정제된 7개 가량의 별자리가 하늘 가득 묘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의 별자리 배치 구조가 유사하여 더욱 흥미를 자아내던 것이었다.

일제시기부터 지금까지 몇몇의 학자들에 의해 그 별자리의 내용이 해석되어 왔으며, 본 인도 이 대열의 끝자락에 참여하고 있다. 아직 심도있는 연구가 더욱 요청되는 분야이기에 선부른 별자리 해석이 저어되기도 하지만, 고구려의 별자리에 많은 관심을 모은다는 측면에서 그리고 그것의 학제간 연구를 촉구한다는 의미에서 본 작업이 시도되었다.

지금까지 행해진 각저총과 무용총의 별자리 해석 작업에 대한 내용을 도표로 정리하면 <표 1, 2>와 같으며, 말미에 본인의 해석 결과를 덧붙여 놓았다. 이를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6, 27>과 같다.

요컨대, 각저총과 무용총에는 모두 7, 8개 가량의 별자리가 그려져 있는데, 전체적인 특징은 무엇보다도 '사방위 별자리' 체계가 잘 적용되어 있는 점이라 하겠다. 북쪽에는 北斗七星과 北極三星이, 남쪽에는 南斗六星이, 동쪽에는 心房六星이, 서쪽에는 參伐六星이 궁륭형 무덤의 천공 가득히 펼쳐져 있다. 이같은 사방위 별자리 형식은 이후 많은 별자리고분에서 발견되므로 고구려의 천문 세계관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대목의 하나라 할 것이다.

더욱이 사방 벽면에는 左靑龍, 右白虎, 前朱雀, 後玄武의 四神圖가 사방위로 포진하여 있고, 하늘에는 동서남북의 사방위 별자리가 걸려있고, 그 사이로 다시 동쪽에는 三足鳥를 실은 태양의 日像과 서쪽에는 두꺼비나 옥토끼를 담은 달의 月像이 둥그렇게 빛난다. 이렇게

42) 서삼동 벽화묘의 중궁은 모두 9개 별이 그려져 있으므로, 북두7성+북극3성으로 보기에는 하나가 부족하다. 그렇지만, 거기에 깔려있는 의도로 볼 때 북두칠성이나 북극삼성 형식과 통하는 면이 적지 않다.

|                | 북쪽 별자리 |      |                    |              | 남쪽 별자리 | 동쪽 별자리    |           | 서쪽 별자리    |             |
|----------------|--------|------|--------------------|--------------|--------|-----------|-----------|-----------|-------------|
|                | 북쪽7성   | 북쪽3성 | 開陽星쪽<br>홀별         | 斗柄 끝<br>홀별   | 남쪽 6성  | 일상위<br>3성 | 동남쪽<br>2성 | 월상위<br>3성 | 서남쪽<br>3성   |
| 中村淸兄<br>(1936) | 北斗七星   | 危宿   | 歲星 혹은 熒惑星<br>혹은 辰星 |              | 柳宿     | 心宿        | 房宿        | 參宿        | 觜宿 또는<br>伐星 |
| 堀淳二<br>(1954)  | 北斗七星   | 三公   | .                  |              | 南斗六星   | .         | .         | .         | .           |
| 리준걸<br>(1984)  | 星宿     | 翼宿   | 老人星 또는<br>祥瑞로운 별   |              | 斗宿     | 房宿        | 角宿        | 觜宿        | 參宿          |
| 김일권<br>(2000)  | 北斗七星   | 北極三星 | 輔星                 | 招搖星<br>혹은 弼星 | 南斗六星   | 心宿        | 房宿        | 參宿        | 伐星          |

표 1. 각저총 별자리 연구사 정리

|                | 북쪽 별자리 |      |                     |  | 남쪽 별자리 | 동쪽 별자리    |           | 서쪽 별자리      |           |
|----------------|--------|------|---------------------|--|--------|-----------|-----------|-------------|-----------|
|                | 북쪽7성   | 북쪽3성 | 斗柄 끝 홀별             |  | 남쪽 6성  | 일상위<br>3성 | 동남쪽<br>3성 | 월상위<br>3성   | 서북쪽<br>3성 |
| 中村淸兄<br>(1936) | 北斗七星   | 危宿   | 歲星 혹은 熒惑<br>星 혹은 辰星 |  | 柳宿     | 心宿        | 房宿        | 觜宿 또는<br>伐星 | 參宿        |
| 堀淳二<br>(1954)  | 北斗七星   | 三公   | .                   |  | 南斗六星   | .         | .         | .           | .         |
| 리준걸<br>(1984)  | 星宿     | 翼宿   | 老人星                 |  | 斗宿     | 心宿        | 房宿        | 觜宿          | 參宿        |
| 김일권<br>(2000)  | 北斗七星   | 北極三星 | 招搖星 혹은<br>輔星        |  | 南斗六星   | 心宿        | 房宿        | 伐星          | 參宿        |

표 2. 무용총 별자리 연구사 정리

고구려의 별자리 무덤에는 무려 삼중으로 천문 방위를 시스템화시키는 독특한 면모가 깔려있다.<sup>43)</sup>

같은 시기 중국의 위진수당대에 그려진 고분벽화의 별자리그림에서 이와 같은 천문 방위 사상은 강하지 않다. 사신도 체제도 주로 좌청룡과 우백호로 간략화되어 있으며, 더구나 사방위 별자리 체계는 거의 찾아지지 않는다.<sup>44)</sup>

이런 점에서 우리가 보아온 고구려의 ‘방위 별자리’ 개념은 고구려의 천문세계관 이해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축조된 각저총과 무용총의 그것

43) 김일권, “고구려 고분벽화의 천문사상 특징: ‘三重 天文 方位 標指 體系’를 중심으로”(1997).

44) 김일권, “魏晉 隋唐代 古墳壁畫의 天文星宿圖 고찰”(19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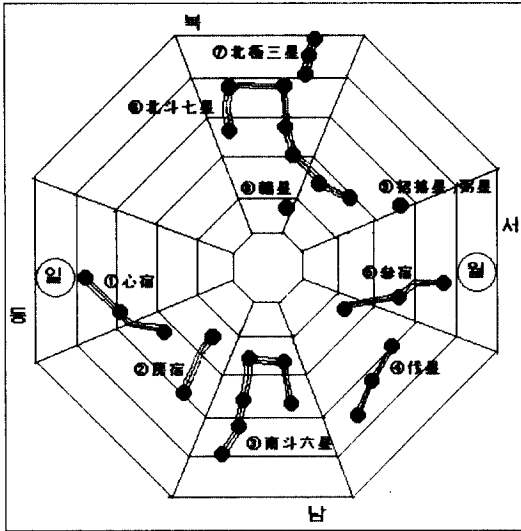


그림 26. 각저총 안간 천정성수도 同定案  
(김일권, 2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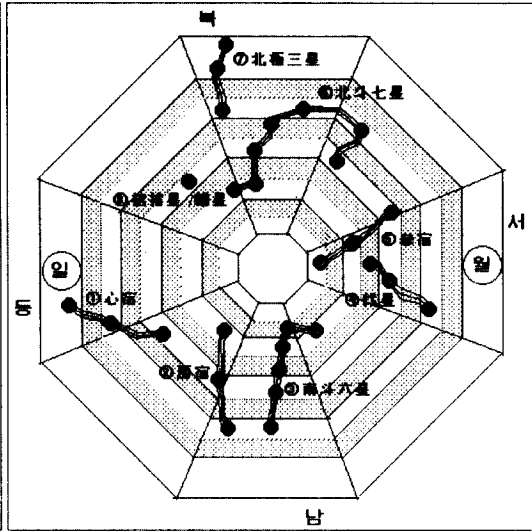


그림 27. 무용총 안간 천정성수도 同定案  
(김일권, 2000)

이 그러한 방위 별자리 관념을 잘 드러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고찰의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독특한 별자리가 많이 묘사된 덕흥리고분이나 아직 해석되지 않은 그외의 많은 별자리 고분들 그리고 발굴보고서가 미진한 것들 등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은데, 한국 고대의 천문학사 정립을 위해서도 앞으로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기대된다.